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

정 광 중* · 강 만 익**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Ⅲ. 어선어업의 실태 |
| Ⅱ. 어업환경과 어업형태 | 1. 연안 채낚기 어업 |
| 1. 어업환경 | 2. 연안 통발(문어단지) 어업 |
| 1) 자연환경 | 3. 연안 자망어업 |
| 2) 인문환경 | 4. 근해 유자망 어업 |
| 2. 어업형태 | Ⅳ. 어선어업의 특성 |
| 1) 면허어업 | Ⅴ. 맺음말 : 추자도 어선어업의
현안과제 |
| 2) 허가어업 | |

I. 머리말

추자도(楸子島)는 반도부와 제주도의 중간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海中島로서, 비교적 어촌경관이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말하자면, 추자도는 섬 전체가 전업어가(專業漁家)가 밀집되어 형성된 전업어촌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추자도의 지형적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추자도는 경사도(傾斜度)가 높은 산지가 발달하여 농경지가 적기 때문에, 비교우위적 측면에서 보면 농업이 어업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추자도의 연·근해 어장에는 수산물이 풍부하여 어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 제주공업고등학교 지리과 교사

라서 일찍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래에 들어 추자도에서는 어업 노동력(선원)의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추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갈치나 참조기를 잡기 위한 어선조업이 본격화되면서 선원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선주와 선원간의 임금체불과 선불금 미회수 문제까지 발생하여 선원 인력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선원에 대한 불안정한 임금지급 형태도 선원 인력난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추자도 지역은 어선어업의 성쇠에 크게 좌우되는 어업노동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결국, 많은 전업어가의 입장에서는 조업을 할 수 있는 어로일수의 감소와 더불어 어획량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으며, 나아가 추자도 전체 어가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추자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업형태인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추자도 연·근해 어업의 실태와 특성을 검토·고찰한 후, 당면하는 현안과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추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선어업의 형태와 어업환경 그리고 어선어업에 필요한 어업노동력의 고용실태와 특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추자도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가지 문헌 중에서도 특히 『楸子島』(1999), 『楸子島銘』(1976),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南樺錄』(1601~1602), 『耽羅誌』(1653) 등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추자도의 지역특성과 어업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추자도 어선어업의 특성과 현안문제를 추적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동안에 현지답사와 함께 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자면 사무소와 추자수협을 방문하여 추자도의 어선어업과 관련되는 기본 통계자료를 입수한 후, 어선어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청취조사는 추자수협의 협조를 받아 톤급별, 어업형태별로 선주(船主) 혹은 선주 겸 선장(船長)을 선정한 다음, 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미리 작성한 설문지를 표본조사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정량적으로 집계한 형태의 통계결과로는 활용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어업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즉 취락의 구조, 어구와 어선의 실태, 항·포구의 제반시설 등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II. 어업환경과 어업형태

1. 어업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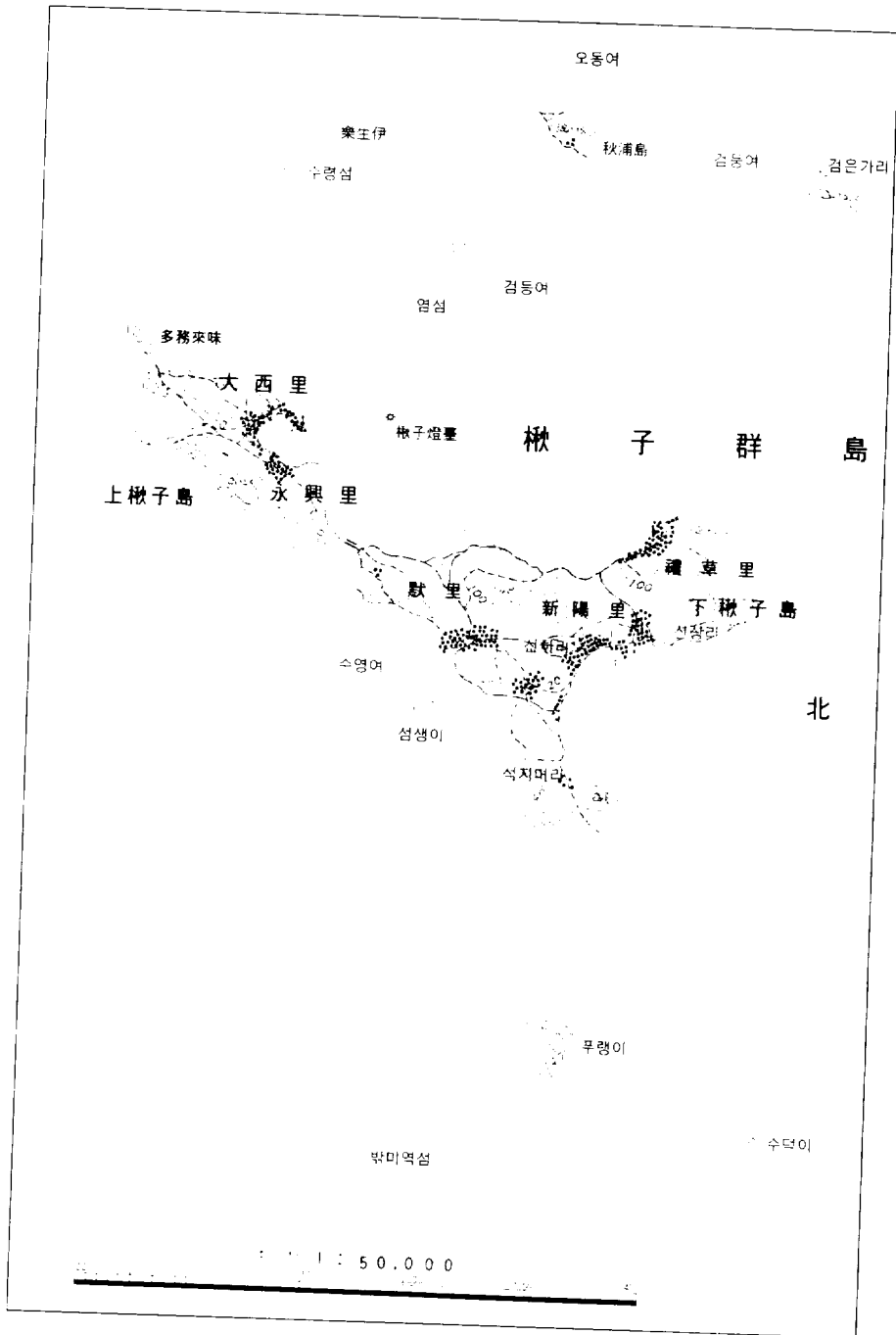
1) 자연환경

추자군도(楸子群島)는 행정구역상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속하며 총면적은 7.02 km²이다. 면적 상으로는 우도면(6.04km²)보다도 더 크며, 따라서 제주도의 부속도서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 할 수 있다. 추자군도는 수리적 위치로 볼 때, 동경 126°12'00" ~ 126°25'00", 북위 33°40'00" ~ 34°10'10" 사이에 산재한다. 그리고 육지부와의 거리에서는 목포항으로부터 61마일(약 98km), 제주항으로부터 28마일(약 45km) 정도 떨어진 남해 상에 위치하고 있다. 도서별 마을구성에서는 상추자도(1.3km²)가 대서리(160ha)와 영흥리(65ha)로, 하추자도(4.2km²)가 묵리(143ha), 신양 1·2리(222ha) 및 예초리(119ha)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유인도인 횡간도(0.6km²)는 대서리, 그리고 추포도(0.1km²)는 예초리에 포함돼 있다<그림 1>.

추자군도는 상추자·하추자·추포도·횡간도 등 4개의 유인도(有人島)와 청도·수덕도·외곽도·화도·소머리섬·수령섬 등 38개의 무인도를 포함하여 총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42개 유·무인도의 주변해역은 마을어장으로서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거나 연안어선들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하추자도 주변에 산재한 38개의 무인도는 어촌주민들이 툿과 소라, 전복을 채취하는 마을(공동)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남시 어선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해안지형은 항구나 포구의 형성·발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추자도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질해안은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수욕장의 형성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추자도의 묵리, 신양리 그리고 상추자도의 영흥리 해안에는 소규모의 역빈해안(礫濱海岸)이 발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하추자도의 신양포구 서쪽 해안에는 '장작지'라고 불리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역빈해안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곳은 소형어선들이 출어 준비를 하는 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마을마다 해안에는 작은 만(灣)이 형성되어 있어서 포구로 활용되고 있다.

추자도의 기후는 대체로 남해안 지방과 유사하며, 연평균 기온이 14C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900mm 정도로 제주도와 완도에 비해서는 적은



〈그림 1〉 추자군도의 위치와 마을 구성

(자료 : 1 : 50,000 지형도, 1975년 편집, 1996년 인쇄)

편이다¹⁾. 1월 평균기온은 3°C, 8월 평균기온은 27.3°C로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연중 조업이 가능한 기후적 특색을 나타낸다. 연안해역의 연평균 수온범위는 10~22°C이고, 여름철 평균수온은 21~23°C, 겨울철 평균수온은 9~11°C이다. 이처럼 겨울철 수온도 비교적 따뜻하여 다른 도서지역과는 달리 겨울에도 어로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자도의 날씨는 평균적으로 바람 부는 일수가 많고 변화도 심한 편이다. 흔히 해안 생태계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어민들은 바람의 특성과 영향을 잘 알고 있어야 어로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²⁾. 추자도에서는 여름에는 마파람, 겨울에는 하늬바람이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하늬바람은 겨울철에 자주 강풍으로 돌변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어로활동 뿐만 아니라 타지방과의 해상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³⁾.

한편, 해안 생태계에서는 바람과 더불어 물때를 알아야 어로작업을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물때는 달(月)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간만주기(干滿週期)로서, 추자도 어민들은 물때를 확인하고 나서 고기잡이나 해산물의 채취에 좋은 시기와 불리한 시기를 구분하여 어로활동에 나선다. 어장에서의 어로활동도 물때에 따라 작업시기가 달라지곤 한다. 물때의 계산은 대개 음력을 사용하며 해녀들은 물때로 작업시간을 맞추기도 한다. 보통 조급에서 여덟물까지는 작업하기에 좋은 물때이며, 해조류 채취나 고기잡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가령, 툇은 간조와 일조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툇을 채취하는 데도 물때의 이용은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보통 일곱물, 여덟물일 때가 가장 작업하기에 좋다고 지적한다. 이 때 조류의 상태를 보면 밀물은 1.8knots의 유속으로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반해, 썰물은 2.3knots의 유속으로 남동쪽으로 흐른다⁴⁾.

추자도 해역은 황해난류의 주공급 해역으로서 제주도의 서부해역을 돌아 회유해 오는 난류성 어류의 길목이기 때문에 어류가 매우 풍부한 어장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바다에 산재해 있는 많은 섬의 영향과 함께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은 표층수와 저층수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항상 풍부한 영양염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어장으로

- 1) 康萬益, 1986, "楸子島の 民家に 대한 文化地理的 研究", 『濟大社會科教育』, 제4집, 87~102쪽.
- 2) 이경미, 1994, "漁民의 環境認知와 適應戰略-거제도 '송어들이'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9쪽.
- 3)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社會教育科, 1994, 『社會科教育』, 第12輯, 68~110쪽.
- 4) 1노트란 1시간에 1,852m를 달리는 속도를 의미한다.

서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⁵⁾.

추자도와 제주항 사이에는 제주해협이 있다. 바로 이 제주해협은 추자도의 근해 유자망 어선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제주해협은 제주도의 남북방향으로 폭이 약 29~38해리 정도에 이르는 좁은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해황(海況)은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어로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안개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자해역에서의 안개 발생의 원인은 하계냉수(夏季冷水)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여름철이라도 차가운 바닷물이 통과할 때 해수면에는 찬 공기층이 형성되고 그 위에는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됨으로써 안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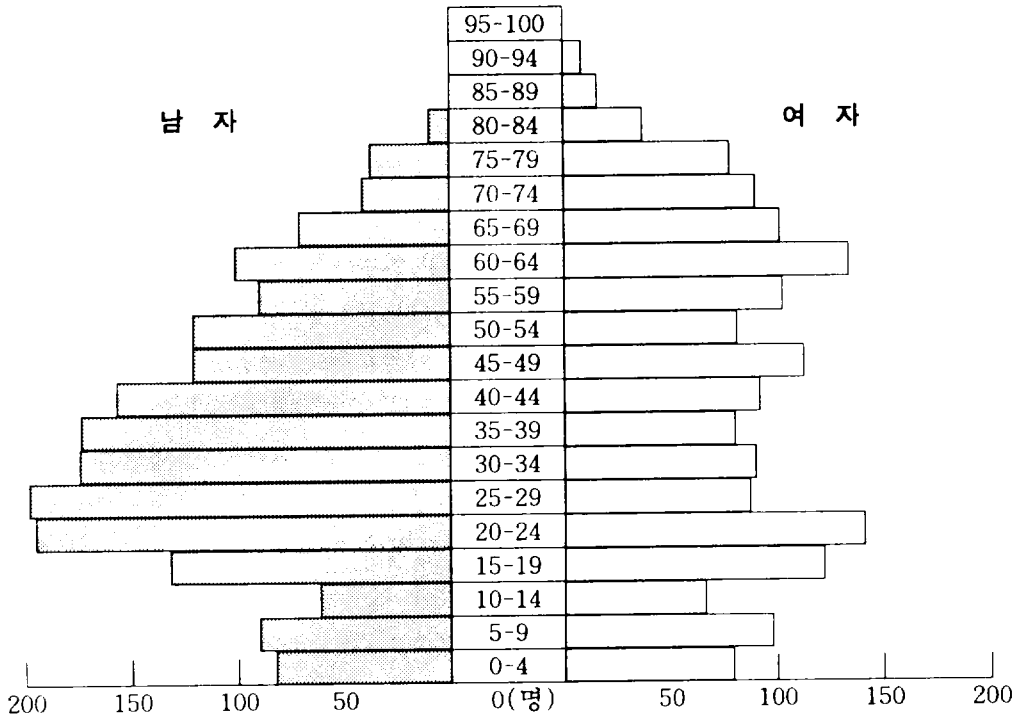
두 번째의 특징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추자도 주변해역에서는 다른 해역에 비해 저온현상(低溫現象)이 자주 출현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추자 주변해역의 저온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제주도 주변해역의 수심은 90~130m 정도이고 추자도 주변해역은 50m 미만이다. 따라서 추자도의 하계수온은 태양열에 의한 수열효과(收熱效果)가 커서 제주도 주변해역보다도 높을 것이 예상되나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6월부터 제주해협으로부터 저층 저온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⁶⁾.

이상과 같은 여름철 냉수의 출현은 궁극적으로 추자 주변해역의 수온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삼치, 멸치 및 문어의 경우는 어군(魚群)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추자도는 여름철에 대부분의 어선이 휴식을 취하는 휴어기(休漁期)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에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자수협 관내의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격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어민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저수온 현상에 따른 어장형성의 부진으로 인해 삼치와 조기 등의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자도 주변해역은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상통로로서 대마난류, 한국 연안수, 중국대륙 연안수 및 황해 냉수 등 여러 개의 수괴(水塊)가 출현하는 해역이다. 따라서 그 분포양상이 계절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매우 다양한 어군의 이동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회유성 어족을 포획할 수 있는 좋은 길목이 되고 있다. 또한, 추자도 주변 해역은 평균수심 50m 정도의 대륙붕 상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어

5) 楸子島誌編纂推進委員會, 1999, 『楸子島』, 65쪽.

6) 金在植, 1986, "楸子島 周邊海域의 海況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42쪽.



〈그림 2〉 추자도의 인구 피라미드

(자료 : 북제주군청 인구통계자료(2001)를 토대로 작성함)

류의 산란과 월동에 매우 유리하고 태양열의 수열효과도 커서 각종 플랑크톤이 서식할 수 있는 해저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자연환경적 조건과 배경을 근거로 할 때, 대체적으로 추자도 주변해역은 어장형성과 더불어 어로활동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인문환경

추자도의 인문환경 요소는 어선어업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면 인구특성, 교통요인, 항·포구 시설, 민박업 및 어촌계 조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추자도의 인구는 2001년 12월 현재 총 3,214명이다. 이 중 남자는 1,719명으로 전체의 53.48%, 여자는 1,495명으로 46.52%를 차지한다. 성비(性比)를 보면 100 : 114로 여자보

7) 俞炳成, 1996, "楸子島의 漁業과 漁村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84쪽.

다 남자가 많은 남초지역(男超地域)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어선어업의 성격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유년층 인구(0~14)는 13.8%, 노년층 인구(65세 이상)는 13.6%이다. 추자도 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내용은 <그림 2>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자도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20~30대 연령층에서 남자가 695명, 여자가 365명(성비 100 : 190)으로 극심하게 남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선어업에 종사하기 위한 20~30대 남성들이 추자도 내로 많이 진출해 있다는 배경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추자도의 20~30대 여성들은 직업선택과 결혼 등의 이유로 제주도나 육지부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해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자도의 리별 인구분포는 <표 1>과 같다. 이를 통하여 추자도 인구의 48.5%가 상추자도의 대서리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별 인구분포의 특징을 보면, 추자도 인구의 70%는 대서리와 영흥리가 위치하는 상추자도에 거주하며, 그리고 30%의 인구가 하추자도인 목리, 신양1·2리 및 예초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추자도의 리별 인구분포

성 별	추자면	대서리	영흥리	목 리	예초리	신양1리	신양2리
계(명)	3,214	1,562	655	255	218	393	131
비율(%)	100.0	48.6	20.3	8.0	6.8	12.2	4.1
남 자	1,719	908	340	121	91	200	59
여 자	1,495	654	315	134	127	193	72

(자료 : 북제주군 인구통계자료, 2001)

이와 같이 인구의 불균형적인 분포배경은 상추자도에 추자도의 최대항구인 추자항이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자도의 행정·문화·경제활동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면사무소, 수협 및 우체국은 물론, 그 외에도 해군부대, 초등학교, 저수지(3개), 내연발전소, 민박집, 다방, 횃집 등 생활 편의시설과 서비스업 시설들이 대거 집중돼 있는 배경과도 관련된다.

한편 추자도의 어업관련 인구수와 가구수는 335가구 1,043명인데, 이 중 어업종사자

수는 394명으로, 이들 중 약 38%가 어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로작업에 필수적인 항·포구의 시설을 보면, 추자항은 한림, 애월항과 더불어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안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항만으로, 추자항은 하추자의 예초리 포구와 상추자도의 대서리 포구를 포함하는 항만이다. 대서리 포구와 예초리 포구는 상·하추자로 분리되어 있으나 위치적으로는 서로 마주 바라보는 형태로 입지해 있다. 그리고 어항에는 국가항인 신양항과 제주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항으로서 묵리항이 있다. 이외에 북제주군수가 관리하는 어촌정주 어항으로서 횡간도와 추포도의 포구가 있다.

추자항은 제주와 목포, 완도 여객선의 기항지이며 동시에 어업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그림 3>. 추자항은 대서리와 영흥리의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로서 북서쪽으로 발달된 산줄기가 겨울철 북서풍을 막아 주고 있어 천연적 양항(良港)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자도 선적의 연·근해 유자망어선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있다. 하추자도에 위치하는 신양항 역시 돈대산이 북서쪽에 위치하여 북서풍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구로서의 입지적 조건은 매우 양호한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 상추자의 추자항 전경

(2002년 8월 촬영)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객선의 접안 역사에서는 신양항이 추자항보다도 더 길다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추자항에 제주도~목포~완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접안하기 전까지는 모든 여객선이 신양항을 경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여객선 접안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까닭에 여객선이 신양항에 근접하면 신양항에서 종선(從船)이 모선(여객선) 쪽으로 다가가 사람과 화물을 싣고 들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는 여객선이 바로 추자항이나 신양항으로 들어와 접안하고 있다.

항구와 포구,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도서 내의 주된 교통수단은 공영버스로 '추자교통(楸子交通)'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연도교(連島橋)였던 추자교(楸子橋)는 1971년에 건설되어 상·하추자도 간의 주민통합에 기여해 왔으나, 1993년 1월 교량이 붕괴되는 참사를 겪었다. 그 이후 1995년 5월에 새로운 교량이 준공됨으로써 상·하추자도 간의 생활교류와 물류유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자도는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데다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지하수 개발도 부진한 편이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물 공급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아직도 빗물을 대·소형 물통에 받아 두었다가 사용하기도 한다. 추자도 내의 본격적인 식수 확보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일제강점기 때에는 어장개발을 위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6년 대서리의 석산 밑에 저수지를 축조했던 것이다. 이 저수지에 빗물을 고이게 한 후 고인 물을 상수도 시설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하였다. 저장용량은 16,000M³/T이며 오늘날까지도 추자도의 제1수원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 상추자도에는 2개의 저수지가 새로 건설되었고, 하추자도의 신양리에도 1개의 저수지가 추가로 축조되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마다 비상수단으로 물탱크용 저장용기(시설)를 갖춰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북제주군에서는 담수 정수장을 하추자도 예초리에 건설함으로써 원활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는 추자도 주민들의 식수난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추자도 주민들에게는 제주도산 생수인 '삼다수(三多水)'를 염가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추자도의 취락은 관광어촌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박업의 증가와 함께 낚시객들의 증가 추세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민박업은 1차산업과의 겸업형태로서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계절적인 경영을 취하고 있다. 원래 어촌의 민박업은 해수욕장의 개설과 연안어업의 쇠퇴에 따른 어

업 생산성의 저하와 소득감소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업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추자도에는 해수욕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마을어업에 따른 소득감소나 낚시객의 증가에 따라 민박업이 앞으로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관광 유어선의 증가도 관광어촌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자도의 관광 유어선은 주로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유어객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시점에서는 21척의 관광 유어선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주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 낚시의 유형은 본섬 주변의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행하는 형태, 선박을 이용하여 인근 무인도의 갯바위로 이동하여 행하는 형태, 그리고 선박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행하는 선상낚시 형태가 있다. 추자도의 관광 유어선의 이용에는 바다 낚시를 원하는 관광객이 해안의 항·포구 주변의 낚시점이나 어촌계를 방문한 후 낚시배를 알선받아 이용하는 경우와 대도시의 낚시점이나 낚시회가 주축이 되어 낚시점 및 어촌계 등과 계약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⁸⁾.

활선어(活鮮魚)를 이용한 요식업의 확대도 관광어촌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저칼로리성 식품인 생선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추자항 주변에도 관광객과 낚시꾼들을 위한 횃집과 식당이 준비하게 입지해 있다. 그러나 이들 횃집과 식당에서는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여 손님을 끌기보다는 대부분 계절적으로 많이 잡히는 활선어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횃집과 식당의 메뉴가 한정돼 있음은 물론 서비스 체제도 비슷한 실태이다.

마을별로 조직된 어촌계도 추자도의 어업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계 현황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툫과 소라, 전복을 채취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인 수산물 공동창고, 냉동·냉장시설, 잠수 탈의장, 어촌 민박시설 및 공동 작업장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근래, 추자도 연·근해에는 승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역 선박들에 의한 불법 싸쓸이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마다 불법조업을 일삼는 선박들의 출현으로 인해 추자도 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는

8) 李在天, 1994, 『觀光漁村』, 白山出版社, 75쪽.

〈표 2〉 추자도의 어촌계 현황

항 목 / 리 별	대서리	영흥리	묵 리	신양리	예초리
어업가구	445	197	87	207	81
어업인구	712	315	131	337	123
어촌계원수	175(153, 22)	98(76, 22)	70(41, 29)	109(73, 36)	56(25, 31)
수산물 생산	38M/T	72M/T	106M/T	137M/T	197M/T
	208백만원	133백만원	178백만원	197백만원	402백만원
어선척수	128	56	16	61	21
99년 호당평균소득	24,892천원	18,701천원	13,366천원	18,365천원	17,621천원
수산물 공동창고	1동 165㎡	1동 105㎡	1동 84㎡	—	1동 165㎡
냉동냉장시설	—	—	—	1동 165㎡	—
잠수 탈의장	—	1동 86㎡	1동 60㎡	1동 74.72㎡	1동 50㎡
어촌민박시설	—	—	1동 639㎡	—	—
어선원 숙박시설	1동 160㎡	—	—	—	—
활어횃집	—	1동 201㎡	—	—	—
관광낚시센터	—	—	—	1동 1,111㎡	—
낚시어선	—	—	—	2척	—
공동작업장	—	—	—	—	1동 50㎡
공동어장 관리선	—	—	—	—	1척(4.97톤)

(자료 : 추자면사무소, 산업계, 2001년 12월)

상황이라 한다. 또한 타지역의 불법조업 선박들은 그물코가 아주 뾰족한 삼중망 그물을 사용함으로써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조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타지역 선박에 의한 불법조업 형태는 추자도의 주변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⁹⁾.

이러한 사례는 최근의 지역뉴스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최근 추자도 내 자망어선 대표 30여명은 제주 북방해역인 추자도 소관탈섬 부근의 조기어장에 타지역의 저인망 어선들이 수십 척씩 때를 지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제주해경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20~30여 척씩 타지역 저인망 어선들이 몰려오기가 하면 출어가 힘든 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며 그에 따른 어획량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자수협 관계자도 “추자지역 자망어

9) 제민일보, 2002년 3월 19일자.

선이 30여 척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의 불법어선들이 수시로 조업에 나서서 남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내년(2003년) 3월까지의 조기의 수확이 한창이어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¹⁰⁾. 이와 같이 추자도 어민들의 불법 저인망 어선에 대한 단속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어업형태

1) 면허어업

추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의 형태는 크게 면허어업(免許漁業)과 허가어업(許可漁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면허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어장)에서 배타적으로 특정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치망 어업과 양식어업, 마을어업으로 구분된다. 추자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허어업의 실태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면허어업의 실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1) 정치망 어업

정치망 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한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定置)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형태로, 대서리 어촌계에만 2개의 면허가 있다. 즉, 대서리 어촌계에서는 대서~횡간도 송치여목(북제주 8호, 1ha) 어장과 대서리 지선 광어밭(북제주 9호, 1ha) 어장 근처에서 정치망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시점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정치망 어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2) 양식어업

양식어업은 마을어장(공동어장)에서 어패류를 기르는 어업형태이다. 그런데 추자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어장이 바로 외해(外海)와 연결되고 파고(波高)도 비교적 높다. 또한 겨울철 북서풍이 강하게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태풍이 빈번하게 통과하는 환경 때문에 양식업에는 상당히 불리한 편이다. 그래서 양식업은 만(灣)이 형성돼 있고 비교적 파고가 낮은 목리, 영흥리, 신양리 포구 안에서 극히 부분적으

10) 제민일보, 2001년 12월 23일자.

〈표 3〉 면허어업의 현황

종 류	어업권자	면허면적	면허번호	위 치	
양식어업	패류	(주)카프 추자수산	부지 : 803㎡ 건축 : 358.15㎡ 선별장 : 100㎡	북제주 제98-10호	신양리 산 1-1 및 앞바다 (바다 면적 : 359㎡)
		묵 리 어촌계	1개소 4ha	—	마을 공동어장
	어류	신양리 어촌계	1개소 1ha	—	마을 공동어장(가두리식)
		영흥리 어촌계	20,000㎡	북제주 15호	마을 공동어장(가두리식)
정치망어업	대서리 어촌계	1개소 1ha	북제주 9호	대서·횡간도 송치여목	
		1개소 1ha	북제주 8호	대서리 지선 광어발	
마을어업 (7,032,770㎡)	대서리 어촌계	1,651,060㎡	북제주 24호~29호	대서리 지선, 횡간도 지선, 수령서·낙생이 지선, 녹서, 공서, 목가리서·주서	
	영흥리 어촌계	1,024,570㎡	북제주 30호~34호	영흥리 지선, 예서·염서 지선, 납덕서·두령서 지선, 병서 지선, 광서 지선	
	묵 리 어촌계	994,950㎡	북제주 35호~36호	묵리 지선, 초란도 지선	
	예초리 어촌계	1,437,900㎡	북제주 37호~44호	예초리 전부 지선, 예초리 후부 지선, 상도·협도·돌도 지선, 오동 서 지선, 대망서 지선, 추포도 지선, 우비암, 가인서	
	신양리 어촌계	1,924,770㎡	북제주 45호~48호	신양리 지선, 외곽도, 우두서, 수덕도	

(자료 : 추자면사무소 산업계, 2001)

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추자도에서의 양식업은 패류(전복)양식과 어류양식으로 구분된다. 어류 양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면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형태이다. 조사시점에서는 신양리와 대서리 및 영흥리의 마을어장에서 참돔과 방어를 일시적으로 기르는 가두리 양식형태였다. 이들은 치어(稚魚) 양식이 아니라 어선어업을 통해 잡아온 어류를 판매하기 전까

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형태로, 아주 소규모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자도의 가두리 어류양식은 본격적인 양식업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시방편적인 양식형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 단위로 볼 때는 신양리와 영흥리 어촌계가 가두리 양식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밖에 추자항 동쪽 방파제 부근에서도 부분적인 가두리 양식이 행해지고 있었다.

패류 양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류 양식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형태로서 신양리에서는 (주)카프 추자수산이, 그리고 묵리에서는 마을 어촌계가 직접 전복양식을 행하고 있다. 특히 신양리 마을어장에서 행하는 (주)카프 추자수산의 전복양식은 어촌계 단위가 아닌 개인에 의한 양식형태로서 신양리 마을어장의 일부(바다 면적: 359m²)를 임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양식전복을 이용하여 전복죽도 판매하고 있다.

(3) 마을어업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패류와 해조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한 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 마을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만이 면허를 취할 수 있다. 마을어업의 면허범위는 강원·경북·제주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평균수심 7m 이내로 정하고 있다. 마을 어업권의 행사는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및 지구별 조합원이 관리·행사하고 있다.

상추자도의 대서리 어촌계는 6건의 마을어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 대서리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의 위치는 대서리 지선, 횡간도 지선, 수령서·낙생이 지선, 녹서, 공서, 묵가리서·주서 부근이다. 대서리 외에도 영흥리 어촌계는 5건, 묵리 어촌계는 2건, 신양리 어촌계는 4건, 예초리 어촌계는 8건의 마을어업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면적 상으로 볼 때는 신양리, 대서리, 예초리, 영흥리, 묵리 순이며 해안선 면적이 가장 넓은 신양리가 마을어업의 면적도 가장 넓게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초리에서는 마을어업을 하기 위해 어촌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해녀들과 어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어업에서 채취되어 판매된 해조류와 패류의 판매실적은 <표 4>와 같다. 2001년도의 판매실적을 보면, 패류(소라)의 판매실적이 전년도에 비

〈표 4〉 마을어장의 수산물 판매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종 별	구 분	2000년도(A)		2001년도(B)		대비(B/A)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2,022	20,447	1,066	10,056	53	49
해 조 류	소 계	75	242	6	371	8	153
	툇	73	176	2	271	3	154
	기 타	2	66	4	100	200	151
패 류	소 계	113	692	166	965	147	139
	소 라	112	625	165	891	147	142
	전 복	1	67	1	74	100	110
기타	해 삼	8	53	8	60	100	113

(자료 : 추자면사무소 산업계, 2002. *합계에는 어류의 수량과 금액이 포함돼 있음)

해 많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을어장을 배경으로 하여 해조류와 패조류를 채취하는 잠수(해녀)의 수는 184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상시 잠수수는 136명, 해조류의 채취 종사자는 24명, 그리고 전직 잠수수는 24명으로 집계된다. 136명의 상시 잠수들은 마을어장과 연해에서 '갯물질'과 '뱃물질'을 통해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포획하는 사람들이며, 24명의 해조류를 주로 채취하는 잠수들은 갯물질 방법으로 마을어장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 갯물질이란 추자도 부근에서 운송수단 없이 도구만 들고 어장에 들어가 물질하는 형태로, 주로 4개의 유인도 부근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뱃물질은 추자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어선으로 이동하여 물질하는 형태로서 38개 무인도 부근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해역도 각 마을별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의 어장은 침범할 수 없다. 해녀들은 작업시 비창, 낚, 태왁, 망사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전복·소라·해삼·홍합¹¹⁾ 등의 패류와 툇·천초·은행초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포획하고 있다. 해녀들의 작업에 따른 해조류의 채취시기는 <표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1) 추자도의 경우는 제주도의 연해에서 볼 수 없는 홍합(紅蛤)이 많이 서식하는 환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추자도의 해녀들은 홍합채취도 중요한 작업 중의 한가지라 할 수 있다.

〈표 5〉 마을어장의 수산물 채취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복												
소라												
해삼												
홍합												
돛												
천초												
앵초												
진포												

(자료 : 金炳成, 1996, “楸子島の 漁業과 漁村研究”, 42쪽)

추자도의 마을어업과 관련해서는 김수현의 지적과 같이¹²⁾, 전체어업 생산량 중에서도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영세 어업인과 해녀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어업이란 차원에서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2) 허가어업

(1) 연·근해 어선어업

허가어업(수산업 제3장제41조)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추자도에서 이루어지는 허가어업은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 어선어업과 문어단지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어선어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선어업에는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수라 할 수 있다. 즉, 어장과 어선과 항구를 기반으로 하여 행해지는 어업형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어로작업을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야만 한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선어업에는 급유시설, 제빙·냉동시설, 수산물 간이집하장 등이 필수적으로 항구주변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급유

12) 김수현, 2002, “연안어업의 자율적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 -추자도 마을어장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4쪽.

〈표 6〉 어업시설 현황

어촌계(수협)		계	대서리	영흥리	묵 리	신양리	예초리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							
위판장		3	2(200평)			1(20평)	
급유 시설		2	1450D/M			600D/M	
급수 시설		3	2920D/M				
유탐유 저장소		1	58평				
제빙·냉동 시설		3	367T/D				
수산물 간이 집하장		1	200평				
건제품 가공 업체		1			1(0.6톤)		
냉동·냉장업		2	575M/T		600M/T		
식품·제조 가공업		3	1(3톤)			2(5.1톤)	
항 만	연안항	1	1				
어 항	3종 어항	1				1	
	소규모 어항	1			1		
어항 내 가두리시설		4	1	1		1	1
어선 간이 수리소		2		1		1(미이용)	

(자료 : 추자면사무소 산업계, 2001)

시설은 어선들의 장거리 항해와 장기간의 어로작업에 필요한 많은 양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는 상추자도의 대서리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4). 제빙·냉동시설 때문에 얼음을 생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며, 어류가 쉽게 부패하는 속성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고 상품화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위판장은 어선에서 잡아온 어류를 중매인을 통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며 현재 추자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다. 조사시점에서는 추자도 선적의 유자망 어선들이 제주도 근해에서 어획한 어류는 대부분 인접항구인 한림항과 제주항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며, 추자도 연해에서 잡은 어류는 추자수협 위판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아울러 추자도의 연·근해 어장에서는 참돔, 민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멸치, 문어, 삼치 등이 주로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어류의 조업시기는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어종은 가을에서 이듬해 봄에 걸쳐 어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濟州島)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름철이 휴어기(休漁期)인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름철에 추자도 연·근해의 수온을 낮추는 냉수괴(冷水塊)의 출현으



〈그림 4〉 추자항의 급유시설과 수산물 가공 처리장

(2002년 8월 촬영)

〈표 7〉 연·근해 어장의 주요 어종과 어획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종												
참조기												
방 어												
삼 치												
고등어												
참 뽕												
농 어												
갈 치												
멸 치												
민 어												

(자료 : 金柄成, 앞의 논문, 12쪽)

로 어장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름철에는 관광 유어선으로 소득을 올리는 어민들도 많다.

어선어업에 의한 어류의 어획량과 어획고의 실태는 <표 8>과 같다. 2001년도 위판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참조기, 삼치 및 고등어의 어획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 어류의 수량(어획량)이 53% 감소하였고, 금액(어획고)도 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은 어장환경의 악화와 어업 노동력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기, 방어, 멸치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많이 잡히는 어종이라고 어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조기의 경우는 영광굴비의 태반을 추자도 선적 어선에 의해 공급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획량이 많은 편이며, 하추자도에는 굴비 가공공장이 들어서 있을 정도이다. 멸치의 경우는 207톤(2001년)을 어획하여 나름대로 멸치젓 산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선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추자도의 마을별 어선의 규모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어선세력으로 볼 때, 5톤 미만의 어선이 36%나 차지하고 있어 어선규모의 영세함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어선의 대형화가 요망되는 시점에 도달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대서리에는 전체 어선의 45%가 집중되고 있고, 동시에 30톤 이상의 어선도 38척이나 집중되고 있어서 근해 유자망 어업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자도 내에서도 30톤 이상의 근해 유자망 어선은 모두 합해 53척으로 전체 어선의

<표 8> 어선어업에 의한 수산물 위판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어종별	구분	2000년도(A)		2001년도(B)		대비(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어류	합계*	2,022	20,417	1,066	10,056	53	49
	소계	1,803	19,456	882	8,658	49	45
	참조기	1,222	17,157	345	6,806	28	40
	삼치	175	1,278	49	979	28	77
	방어	127	699	207	557	163	80
	고등어	83	75	38	53	46	71
	멸치	111	39	207	175	182	449
기타	기타어류	82	208	36	88	44	42
	소계	31	57	12	62	39	109
	오징어	23	4	1	2	17	50
	해삼	8	53	8	60	100	113

(자료 : 추자면사무소 산업계, 2002. *합계에는 해조류와 패류가 포함되어 있음)

〈표 9〉 추자도의 리별 어선세력(동력선)

리별	계		1톤 미만		1~5톤 미만		5~10톤 미만		10~20톤 미만		2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톤 이상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대서리	126	2,397.13	1	0.55	24	98.86	53	406.72	1	19.00	3	79.00	38	1,490.00	6	303.00
영흥리	58	614.31	1	0.81	25	108.84	22	150.80	2	31.86		—	8	322.00	—	—
신양리	60	513.86	—	—	31	124.00	23	161.86	—	—	—	—	6	228.00	—	—
예초리	20	198.64	—	—	12	55.36	5	39.28	—	—	2	57.00	1	47.00	—	—
목리	14	70.85	—	—	9	41.30	5	29.55	—	—	—	—	—	—	—	—
합계	278	3,794.79	2	1.36	101	428.36	108	788.21	3	50.86	5	136.00	53	2,087.00	6	303.00

(자료 : 북제주군, 2002, 『해양수산현황』, 북제주군 해양수산과)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유자망 어선들은 대개 동중국해까지 진출하여 조기잡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30톤 이상의 어선의 증가는 추자도 내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자본제 어업으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5개의 마을 중에서도 목리는 10톤 이상의 배가 단 1척도 없어 어선세력이 가장 약한 마을로 나타난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목리는 추자도에서 가장 농업활동이 활발한 마을인 동시에 부자마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의 읍면별 어선 척수와 톤수를 보면, 추자도는 278척 3,795톤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선 척수에서 한림읍(361척)에 이어 2위의 자리에 있지만 톤수에서는 한림읍(2,255톤)을 제쳐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추자도 선적 어선들이 주로 행하는 연·근해 어업을 어구와 어법에 따라 세분하면 연승과 유자망, 외줄 채낚기, 들망(후릿그물)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다. 허가건수를 토대로 하여 마을별 어선들의 어업형태를 검토해 보자면, 추자도에서는 연승어업이 가장 일반적인 어업형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선수가 많은 상추자도의 대서리(총 허가건수 253건), 영흥리(동 125건) 및 하추자도의 신양리(동 123건) 선적의 어선에 의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들 3개의 마을이 차지하는 허가건수의 비율은 약 88%(570건 중 507건)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추자도의 마을별 어업허가 형태

허가형태 리 별	어업 허가 형태 (건)								
	연 승	외 줄 (채낚기)	자 망	들 망	초 망	통 발	문 어	양 조	기 타
대 서 리	71	40	78	32	17	7	1	2	—
영 흥 리	51	13	26	16	13	4	1	—	*1
신 양 리	46	20	27	16	9	1	1	3	—
예 초 리	16	2	5	10	1	1	—	—	—
북 리	12	2	5	8	1	—	2	2	2
합 계	201	77	141	82	41	13	5	7	3

(자료 : 『추자면 리별 어선등록 대장』, 2002, 추자면사무소 산업계)

연승어업 외에 외줄 채낚기·자망·들망·초망어업 등도 대체적으로 전술한 3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마을별 어선척수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연·근해 어업에서는 대부분 어업허가를 '복합적'으로 승인받아 조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어선 한 척이 여러 개의 조업허가를 받고, 시기에 따라 혹은 어종에 따라 얼마든지 어업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어선 1척은 전술한 어업형태 중 2~4개의 어업허가를 동시에 승인 받아 조업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추자도에서의 외줄낚시 어업은 대부분 채낚기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2) 통발(문어단지) 어업

문어 통발어업은 150~300m의 긴 줄에 30~100개 정도의 원통형 통발 또는 플라스틱 단지를 달아 주낙을 놓듯이 풀어놓았다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단지를 끌어 올려서 잡는 형태로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법이라 할 수 있다. 추자도에서는 특히 예초리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그림 5).

13) 추자수협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2002년 11월 3일)에 의한.



〈그림 5〉 예초리 공동 작업장 옆에 야적된 문어단지

(2002년 8월 촬영)

Ⅲ. 어선어업의 실태

추자도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선어업의 형태는 연안 외줄 채낚기 어업, 유자망 및 자망어업, 통발(문어단지) 어업이다¹¹⁾.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이들 세 가지 형태의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를 정리하여, 추자도의 어업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선택한 사례 어가(漁家)는 추자도 어선세력을 근거로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소유하는 배의 톤수와 어업의 형태를 고려하였다. 사례 어가에 대한 청취조사는 2002년도 8월 중순에 개별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청취 조사한 결과는 각 사례별로 (1) 어업경력 및 어선규모, (2) 어업허가 형태, (3)

11) 보통 문어잡이에는 두 가지 어구가 사용된다. 즉, 하나는 원통형으로 길쭉하게 만들어진 '통발'과 플라스틱으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 '문어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문 상의 어업허가로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통발어업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통발(문어단지)'로 서술하기로 한다.

주 어획어종과 판매방법. (4) 어획과정과 방법, (5) 선원고용 여부와 임금지급 형태, (6) 애로사항 및 행정당국에의 건의사항 순으로 정리하였다.

1. 연안 채낚기 어업

상추자도 영흥리에 거주하는 장○○씨(66세)의 연안 채낚기 어업의 사례이다. 세대주인 장○○씨는 선장 겸 선주(船主)이며, 선친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형식으로 가계를 이끌어 오고 있다.

(1) 어업경력 및 어선규모

장○○씨의 어업종사 경력은 25년 정도로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의 어선인 '36 성○호'는 6.61톤으로, 7년 전 4.150만원을 주고 완도에서 구입해 왔다. 추자도 선주들은 대부분 어선을 전남 여수나 완도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1년 동안 남의 배를 타다가 현재의 어선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어업허가 형태

장○○씨는 연안복합 허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어업허가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어구(그물과 분어단지)를 바꾸어 가면서 조업할 수 있다. 연승(주낙), 들망 및 통발 등 세 가지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

(3) 주 어획어종과 판매방법

장○○씨는 추자도 연안어장에서 주로 멸치, 삼치, 참돔 및 방어를 잡는다. 이들 어종은 연안어장에서 소규모의 어선으로도 많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이다. 참돔은 봄철인 3~4월, 삼치는 10~12월 중순, 방어는 11월 초순~12월말에 주로 어획한다. 최근 추자도 연안어장에서 어획하는 어류의 어획량을 대체로 비교하면 방어 60%, 삼치 30%, 참돔 10% 정도이며, 추자수협위관장을 통해 중매인에게 판매한다.

최근의 변화는 비교적 삼치를 많이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삼치 시세가 가장 좋았을 때의 가격은 Kg당 12,000~13,000원 정도하는데, 1998년의 경우 삼치와 방어를 잡아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것은 9월 15일경~다음해 2월초에 걸쳐 추자도 연안에서 조업하여 얻은 수입이었다.



〈그림 6〉 장○○씨의 소유 어선 : 연안 채낚기 어선(6.61톤)

(2002년 8월 촬영)

작년부터 수입산 어류가 시장에 공급됨에 따라 추자도 자연산 어류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점차 추자도산 어류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특히 2~3년 전부터는 양식어류가 거의 모든 횃집을 장악하면서, 추자도 연·근해에서 잡은 자연산 어류의 판로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4) 어획과정과 방법

장○○씨는 삼치, 방어 및 참돔을 외줄낚시로 잡는다. 즉 하나의 낚시줄에 7~8개의 낚시를 매달아 감아 올리는 방법이다. 다른 형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추자도에서 이루어지는 연안 채낚기 어선의 2/3는 주로 부부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새벽 4시경 어구를 준비하고 출항하여 추자도 연안어장에서 작업한 후 저녁 8시경에 추자항으로 귀향한다.

아침에 어장으로 나가 작업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형태이므로 어로작업이 안전할 뿐

만 아니라 적은 수의 노동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업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연안 채낚기 어선의 대부분은 '부부어업(夫婦漁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은 부부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선원고용 여부 및 임금지급 관계

연안 채낚기를 할 경우 부인이 함께 어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가끔 노동력을 고용하곤 했으며, 현재도 '36 성0호'에는 1명의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 채낚기 어업의 경우에는 선원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현재 고용된 선원은 추자면 영흥리에 거주하는 53세의 남자선원으로 5년 동안 계속 고용하고 있다. 이 선원은 추자도 출신으로 과거에 배를 부렸던(어선을 운영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과거에 멸치잡이를 할 때는 9명의 선원을 고용했던 적도 있다. 그물을 던지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원의 고용기간은 대체로 9월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였으며,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고용하였다. 그들은 추자도에 살고 있는 현지인으로 과거에 뱃일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노동력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온이 낮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멸치가 잡히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많았다고 한다.

임금지급은 선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36 성0호'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가진다. 즉, 총 어획고에서 어로작업을 하는데 들어간 공동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4로 배분하고 있다. 선주 겸 선장에게는 60%, 선원에게는 40%를 주고 있다.

(6) 애로사항 및 행정당국에의 건의사항

선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올해는 멸치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소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장이 점차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어족자원의 보호에 추자도 어민들이 합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연안 통발(문어단지) 어업

하추자도 동북쪽에 위치하는 예초리 마을 김○○씨의 연안 통발(문어단지) 어업 사례이다. 김○○씨는 추자도 내에서도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전업 어가

의 가장으로서 선주 겸 선장이다. 다른 사람의 배를 타면서 문어잡이를 배운 후에 자신의 배를 구입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 제시한 사례와는 다소 경험적 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도 문어잡이에만 주로 전념하는 가운데, 추자도의 어업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어업 후계자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 어업경력 및 어선규모

김○○씨는 전업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이전, 10년 동안 남의 배에서 문어잡이를 경험했다. 문어잡이의 경력은 전부 16년이다. 중간에 배를 유자망으로 개조하여 조기잡이를 한 적도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배(장○호)의 톤수는 4.98톤이며 네 번째로 구입한 것이다. 지금의 배는 2년 전에 묵리(하추자) 사람으로부터 2,5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건조한 지는 8~9년 정도 되었다. 5톤 정도의 배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5,500~6,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현재 추자도에서는 예초리에서만 5척의 배가 문어통발 조업을 하고 있다. 문어통발 조업에 나서고 있는 배들은 주로 5~10톤 정도의 배들이며, 소형어선으로는 문어통발 어업이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2) 어업허가 형태

김○○씨가 소유하는 배는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허가번호는 JJ95-9509006이다. 연승과 들망어업의 허가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문어단지 어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3) 주 어획어종과 판매방법

김○○씨는 보통 800~1,300Kg 정도의 문어를 잡으면 판매한다. 4~5일 작업하면 1,000Kg이상 어획이 가능하다. 3일간 작업하여 17,000개의 문어단지를 모두 걷어올리면, 평균 400Kg 정도를 잡을 수 있다. 500~600Kg를 잡을 수 있으면 “괘창은 어장(漁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씨는 추자수협 위판장에는 문어 중매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설치한 가두리 양식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완도로 운반하여 판매한다.

최근에는 여객선에 차량적재가 가능해지면서 가을과 겨울에는 완도로부터 중간상인들이 문어 운반차를 싣고 들어와 직접 구매해 가기도 한다. 이 경우에 문어를 조업하는 선주들은 완도까지의 운송비가 절감되므로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선주들은 운반차의 운임비 명목으로 문어를 좀더 “접어준다(붙여 준다)”. 중간상인이 직접 추자도로



〈그림 7〉 김○○씨의 소유 어선 : 연안 통발 어선(4.98톤)

(2002년 8월 촬영)

들어오면 선주 자신은 완도로 문어를 운반할 필요도 없고 또한 문어 운반배가 추자도에 도착하는 사이의 시간을 활용하여 작업하면 100Kg 정도는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운반차의 운임비 명목으로 약 60Kg 정도를 더 붙여주고 있다. 문어통발의 조업시기는 여름철(7월과 8월)을 제외한 약 10개월 동안이다.

김○○씨가 문어통발 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공동경비를 제외하고 대략 4,000~5,00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어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문어통발 어업은 권장할 만하다. 실제로 예조리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문어통발에 종사하고 있다. 요즘, 문어가격은 1Kg 당 6,000원 정도이다. 추석과 구정(舊正) 무렵에는 문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1Kg 당 10,000원~12,000원 정도로 가격이 한층 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추석과 구정을 앞둔 시기에는 일하는데 아주 신이 난다.

(4) 어획과정과 방법

문어는 날이 지나치게 더워지면 폐사해 버리는 습성이 있다. 보편적으로 7월말부터 9월초까지 문어어장은 쉰다. 문어는 산란 후 죽기도 한다. 문어통발 조업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다. 가령, 통발 투입과정에서 남의 어구(통발) 위로 통발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헤친 다음 중복되지 않게 투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추자도의 문어조업은 소규모의 배가 많아서 추자도 연해에서만 조업하며, 주어장은 전남 보길도와 추자면 횡간도 사이이다.

해경기지가 하추자도의 신양리에 있어서 추자도 연해에 대한 어장감시가 철저하다. 문어통발 배들은 수산법에 의해 1종 공동어장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9월초가 되면, 문어들이 해녀들의 작업어장인 공동어장으로 들어가는 속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어를 잡기 위해 통발어선이 공동어장을 침입하는 사례(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간혹 해경 단속선과 통발조업 어선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현재 김○○씨는 17,000개의 문어통발(단지)을 사용하여 조업하고 있다. 바다에 투입한 문어단지를 전부 회수하는 데는 약 3일 정도가 소요되며, 각 줄마다 700개, 850개 혹은 1,000개씩 매달아 바다에 투입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문어가 잘 잡히는 곳을 골라 투입한다.

추자도 연해는 대부분 돌발(암석해안의 영향)이다. 이곳에 사는 추자도 문어들은 색이 검고 붉어서 보통 “피문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남 남해안 문어보다 상품가치가 약 1,000원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전남 남해안은 빨발(갯벌의 영향)이다. 이곳에 사는 문어는 “빨문어”라고 하며, “피문어”에 비하여 상품가치도 다소 높다. 이점은 판매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선원고용 여부 및 임금지급 관계

어로작업에는 선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 1조가 되어 행하고 있다. 앞으로 일할 선원들에게 미리 선불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선원 중 3명은 육지부 출신이며, 이중 1명은 처음부터 문어배를 1년 이상 탔던 경력자이다. 문어배 기술자가 어로작업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충청도에서 왔는데, 40세로 경력자이며 6년 전 아는 사람을 통해 고용하게 됐다. 그리고 2명은 대구에서 데려왔다. 24세와 33세의 선원으로 고용한지 6개월이 지났다. 직업 소개소에 1인당 45~5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후 데려왔다. 이들은 직업 소개소에서 제주행 항공권을 넘겨받아 제주에 도착한 후, 중간 역할을 하는 제주시 내의 여관에서 1박한 후 추자도행 배로 들어왔다. 이러한 경우, 여관 주인은 선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하룻밤 재우고, 교통비까지 마련하여 추자도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고용인(선주)과 여관 주인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

사례이다.

선원들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선주 겸 선장인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선원을 고용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는 사람 혹은 비교적 얌전한 선원을 선호한다. 예초리에 있는 문어통발 선원들은 대부분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조업이 없는 날에는 같이 집안에서 돼지고기를 구어 먹거나 낚시하러 가기도 한다.

선원들의 임금은 월급형태로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대략 선원들의 월수입은 150만원 정도("한 짓 반")이다. 임금은 6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한다. 보통 구정 때나 여름철 문어통발 작업을 쉬 때에 정산한다. 임금지급 형태는 최저 임금제와 보험제를 병용하고 있다. 선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월 법정 최저임금인 60만원 이상을 보장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경우, 공동경비(주로 배 기름값, 예: 1,000만원)를 먼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4,000만원을 선주와 선원간에 5:5 비율로 배분한다. 즉 선주에게 2,000만원 그리고 선장, 선원 1, 2, 3에게 2,000만원을 배분한다. 이때 선원들에게 배분액수가 월 6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선주가 부족한 액수를 채워 주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통발어선 선원들은 유자망에 비해 '사람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월수입도 유자망 어선에 못지 않다.

만일, 선원들이 계약기간(6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 그만둘 때는 가기 1주일 전까지는 선주인 자신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가 버리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는 선원들이 다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 60만원씩을 일한 개월 수에 맞추어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취업이거나 군입대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더욱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6) 애로사항 및 행정당국에의 건의사항

최근에 있었던 조업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애로사항이나 행정당국에의 건의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 전라도권 문어배들이 추자도 어장에 들어와 조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예초리 통발어선의 소득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근해 허가를 주고 있으나, 10톤 미만의 배에 대해서는 연해 허가만 주고 있다. 따라서 추자도의 문어통발 배들은 모두 10톤 미만이므로 추자도 연안어장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추자근해에서는 문어통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전라도권 어선들은 근해 허가를 가진 10톤 이상의 배들이 너무 많고, 이들 어선이 추자근해까지 진출해 문어를 잡고 있어서 결국 추자도의 문어통발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강조해서 말하면, 추자도 어민들에게도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추자근해에서도 통발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근해 허가를 가지고 있는 전라도권 통발어선들은 추자도 근해어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막아 주었으면 한다.

제주도에서도 꽃게 통발을 허용해 주었으면 한다. 전라도권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도권 어선들이 제주도 근해 어장까지 진출하여 꽃게를 전부 잡아 버리고 있다. 전라도 통발어선들은 꽃게를 잡을 수 있고, 제주도 어선들은 잡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리라 생각한다. 제주도(특히 추자도) 어선이 꽃게 통발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라도권 꽃게 통발 어선들이 제주근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3. 연안 자망어업

하추자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묵리(默里) 마을 윤○○씨의 자망(刺網)어업 사례이다. 윤○○씨는 오랫동안 묵리에 거주하면서 주로 자망어업에만 전념해 왔다. 윤○○씨의 자망어업은 어구인 그물을 해수면 아래에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고정시킨 후 고기를 잡는 고정식 자망 어법이다. 주요 어장은 추자 연안이다. 자망어업에서의 문제점은 그물에 걸린 어류의 목 부위에 표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관계로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1) 어업경력 및 어선규모

윤○○씨는 16세 때부터 자망어업을 시작하였으며, 23세 때 군을 제대한 후에는 현재의 거주지인 묵리에서 본격적으로 자망어업을 하였다. 30년 전부터 배를 운영해 왔다. 당시 묵리에는 13척의 자망어선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비동력선으로 노를 젓는 목선(木船)이었다. 현재 묵리에는 자망어선이 3~4척으로 크게 감소해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는 남의 배를 타다가 21세 되던 해에 노를 젓는 목선을 구입하였다. 당시는 경비가 부족했던 관계로, 8촌 형제들과 공동으로 돈을 모아 배를 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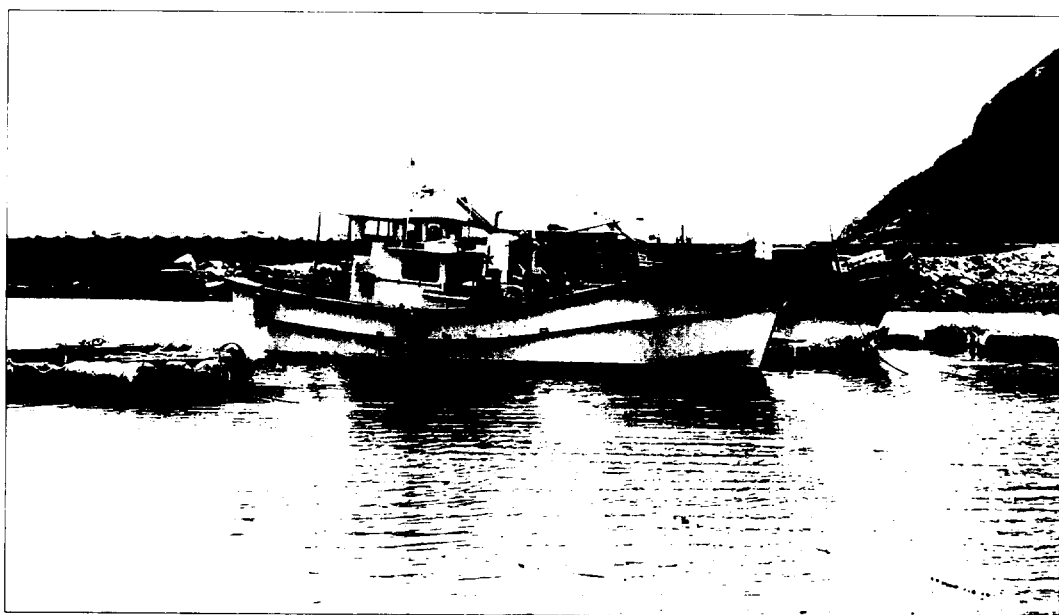
윤○○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배는 '재○호'로서 톤수는 6.67톤이다. 신양리 장작지 해안에 배를 정박시키고 있다. 현재의 배는 8년 전에 구입하였으며, 자신으로서는 6번째로 구입한 것이다. 완도에 있는 '한일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을 구입해 왔다. 배를 구입하는데는 약 5,000만원이 들었으며 어로작업에 필요한 여러 장비의 가격은 600~7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2) 어업허가 형태

윤○○씨는 연승, 자망 및 들망어업의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허가번호는 JJ95-9603002이다. 최근에는 주로 연승 및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3) 주 어획어종과 판매방법

윤○○씨의 최근 조업형태와 판매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월부터 10월까지 방어와 쥐치를 잡고 있으며, 방어는 대개 100마리 이상 잡으면 완도로 판매하려 한다. 방어의 시세는 Kg당 4,700~30,000원 사이로, 때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이다. 11월~12월에는 주로 농어를 잡는다. 이 때 농어가 잘 잡히지 않아 돈벌기가 힘들어지



〈그림 8〉 윤○○씨의 소유 어선 : 연안 자망 어선(6.67톤)

(2002년 8월 촬영)

면, 인근의 무인도 주변에서 그물대신 낚싯대를 이용하여 고기를 낚기도 한다.

자망으로 잡은 고기는 추자도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횃집에 공급되는 활어라고 할지라도, 자망으로 잡은 고기에는 목 부위에 테(그물자국)가 쉽게 나기 때문에 수협 중매인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자 연해에서 잡은 고기를 완도까지 직접 운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에서는 추자도보다 고기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한다.

(4) 어획과정과 방법

자망어업(刺網漁業)은 '걸그물 어업'이라고도 한다. 마치 테니스 코트에 치는 네트 모양으로 어군(漁群) 통로에 띠 모양의 긴 그물을 쳐 놓고 고기를 그물코에 낚히게 하거나 엮어매서 잡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어구(그물)를 고정시켜 놓고 잡는 고정자망 어법이다. 하추자도의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어장에서 그물을 놓고 10여분 경과 한 후에 걷어올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잡는다. 이 과정에서 생업으로 하는 자망어선 선장과 부업으로 하는 타 지역 낚시꾼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목리에서 자망 어선수가 많았던 때에는 낚시꾼들이 꿈쩍 못하였으나, 어선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최근에는 오히려 낚시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망은 해안에서 150~200m 떨어진 어장에 주로 설치하고 있다. 종종 낚시꾼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자망어선들이 제1종 공동어장 내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제1종 공동어장은 툫, 소라 및 전복을 채취하는 마을어장(해녀어장)인데, 이곳에서의 자망어업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따라서 제1종 공동어장 내에서의 작업은 수산법 위반이 된다.

자망어업은 물때가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일곱물부터 아홉물까지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한다. 물때에 따라 조업시간은 다르지만, 대개 저녁 6~7시에 출항하여 밤 12시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경우가 많다.

(5) 선원고용 여부 및 임금지급 관계

어업노동력은 선장과 선원으로 구성된다. 요즘은 작업 시 선원 2명을 고용하고 있다. 선원 2명은 모두 목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령은 56세와 70세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직접 배를 운영했던 유경험자들이다.

임금은 공동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50(선주) : 50(선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구분하는 것을 “짓 가르다”라고 한다. 선원 몫인 50% 금액은 선장이 3.5(세 짓 반), 선원 A가 3.5, 선원 B가 3.5의 비율로 배분하며, 이 때 선주에게도 선원들에게 배분되는 3.5의 비율에 대한 80%를 배정한다.

(6)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추자 근해에서도 삼중망을 이용하여 송어잡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으면 한다. 제주도의 배들은 삼중망을 이용한 송어잡이를 못하는 반면에, 전남해안의 어민들은 삼중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전남과 추자도 사이의 어장에서 송어잡이를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루빨리 제주도에서도 삼중망 어업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북리 공동어장에 풍부했던 돌김과 툫이 거의 소멸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어장으로 던진 밀밥이 조류가 약한 지점에 퇴적됨으로써 소라, 전복 및 해조류의 생육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낚시꾼들의 밀밥 사용에 대한 규제 등 적절한 대책도 요구된다.

4. 근해 유자망 어업

상추자도 대서리에 거주하는 박○○씨의 유자망 어업을 사례로 삼았다. 박○○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어업에 종사했으나,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부터이다. 현재는 차남에게 선장의 일을 가리키고 있을 정도로 어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며, 동시에 매우 현대적인 사고를 지닌 선주이기도 하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추자도의 미래의 어업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1) 어업경력 및 어선규모

박○○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18세부터 현재까지 배를 타고(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 있다. 3년 동안 선원생활을 거친 후, 5년 동안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어선에서 기관장으로 일을 했다. 군 제대 후 2년 동안 다시 선원생활을 한 후, 31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장직을 맡아 왔다. 현재는 선장 일은 그만두었으며 선주의 입장에서 차남

에게 선장 일을 배워 주고 있다.

박○○씨는 34세 때에 배를 직접 구입한 이후 어업에 전념해 왔는데, 현재의 '808 일○호'는 다섯 번째로 구입한 배이다. 배는 전남 강진에서 건조해 왔으며 규모는 39톤이다. 추자도 유자망 어선의 80%가 39톤이다. 배의 톤수가 40톤을 넘기면 선원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고 정부의 혜택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나 무선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39톤형 배를 선호하고 있다. 배를 구입한지는 4년 반이 지났다. 목선(木船)이 아니라,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어선으로 수명은 10~15년이다. 목포에 있는 <한선 조선소>에서 건조했으며, 장비를 포함한 배의 가격은 5억 3,000만원이었다. 배의 수리비는 1년에 평균 300~500만원이 든다. 특히 배를 건조할 때는 미국산 주기관의 구입비용으로 1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다. 국산 주기관은 품질이 떨어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나중에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선원 고용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면 전체 약 7억원 정도가 들었다.

출항허가를 받아 출어하려면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수공제에 가입해야만 한다. 목선의 경우 1,000만원, FRP 어선은 500~600만원을 공제비로 내야만 한다. 그러나 5년 동안 무사고일 때에는 300~350만원 정도가 할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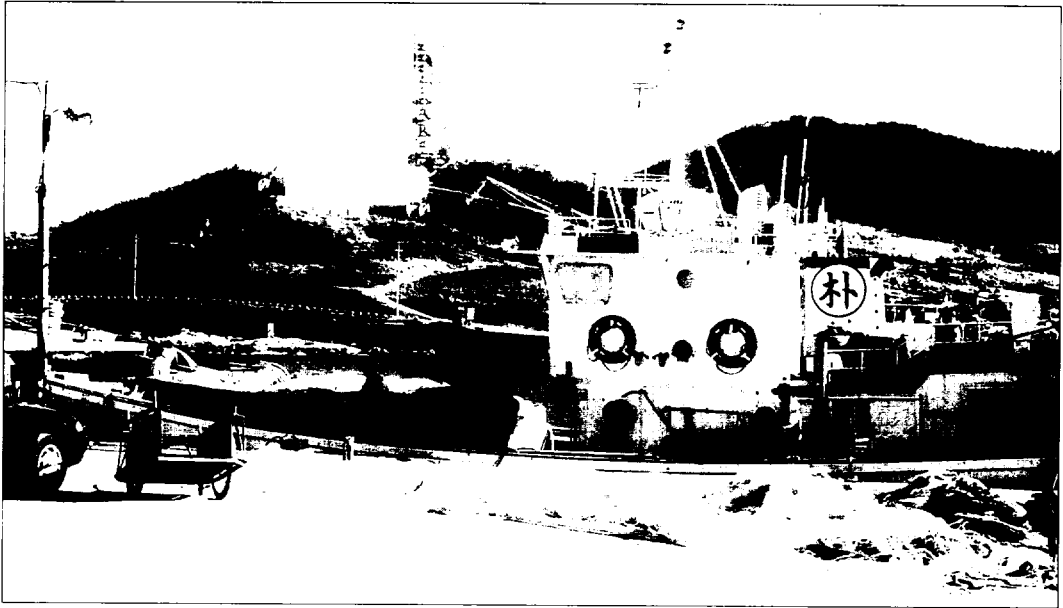
(2) 어업허가 형태

박○○씨는 최근 근해 유자망 어업에만 주로 전념하고 있으며, 어업허가는 근해 연승어업과 자망어업 두 가지 형태이다.

(3) 주 어획어종과 판매방법

박○○씨가 최근에 주로 잡는 어종은 조기, 옥돔, 갈치 및 고등어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요즘 많이 잡는 고등어는 선도(鮮度)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작업어장과 가까운 한림항으로 입항하여 판매하고 있다. 조기는 9월 15일경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잡는다. 조기를 잡아 하룻밤에 1억씩 5일간 벌어들인 경험도 가지고 있다. 조기의 최고상품은 1상자에 70마리 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잡히는 조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1996년까지는 어장이 좋아 소득이 많았으나, 그 후 2년 동안은 어획량이 감소하여 투입한 돈에 비해서는 약 2억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옥돔과 갈치, 고등어는 3



〈그림 9〉 박○○씨의 소유 어선 : 근해 유자망 어선(39톤)

(2002년 8월 촬영)

월말부터 8월말까지 어획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1995년과 1996년도가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던 때이다. 이때 벌어들인 수입으로, 해변가에 6억원 짜리 집을 신축하였다. 이후에 어장환경은 점점 나빠져 지금도 고전 중에 있다.

2001년도 총수입을 결산해 본 결과, 서류 상의 조수입은 2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주에게 돌아온 실제 수령액(수입)은 4,000만원 정도였다. 지출액이 너무 많아 실제 수입은 아주 적어진 것이다. 한 예로서, 직업 소개소를 통해 선원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는 1,500만원 정도를 날려 버렸다. 그리고 배를 운영하는 데도 높은 비율의 사채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사채이자로 연간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버렸다. 이 밖에도 선체 유지비, 선원 공제금 등으로 연간 350만원 정도가 지출됐다.

박○○씨의 최근 2년 동안의 연평균 수입은 4,000~6,00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실제수입을 올리는 배들은 추자도 전체(유자망 60척)로 볼 때 10~15척에 불과한 실정이라 한다. 그리고 15척 정도는 현상유지 정도를 보이며, 나머지 50% 정도는 빚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4) 어획과정과 방법

유자망은 그물을 고기가 잘 다니는 길(魚道)에 설치하여 고기가 그물코에 끼어 들게 해서 잡는 방법이다. 그물을 원하는 수층(水層)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고등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을 잡아들일 수 있다. '808 일〇호'에서는 현재 유자망 그물을 이용하여 고등어를 잡고 있다. 선도유지 때문에 길면 4일에서 짧으면 1일씩 작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옥돔과 갈치, 고등어는 3월말부터 8월말까지 동일한 그물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다. 어구는 교체하지 않고 수리한 후 사용하고 있다.

어장이 좋을 때는 1년에 쉬는 기간이 20~30일 정도이다. 그러나 요즘은 1개월에 5~10일 정도를 쉬는 편이다. 휴어기(7월 1일~7월 22일경)가 끝나면 9월말까지 고등어를 잡기 위해 출어준비를 한다. 어구손질을 위해서는 항·포구에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추자도 유자망 어선들은 척수에 비해 항·포구 면적이 좁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취하며 귀항일자를 조정한다. 다음, 순차적으로 입항하여 항·포구에서 어구를 손질하기도 한다.

(5) 선원고용 여부 및 임금지급 관계

유자망 어업은 선주에게는 비교적 노동의 대가가 적은 어업형태이다. 유자망 어업에 필요한 선원의 수는 11~13명이다. 현재 '808 일〇호'에서는 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추자도 출신의 선원은 단 3명뿐이며 나머지 8명은 육지부 출신의 선원이다. 제주도 본도의 어업 노동력은 육지부 선원에 비해 고가이므로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 노동력을 고용한 적도 있으나, 작업태도와 언어소통에 문제가 생겨 현재는 고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박〇〇씨가 고용하고 있는 '808 일〇호'의 선원들의 계약기간은 1년이다. 처우를 개선해 주면 오래 남기도 한다. 육지부 선원들의 경우 부산, 서울,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직업 소개소를 통해(소개비는 1인당 60만 정도)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 빚에 쫓긴 사람이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일부 선원의 경우에는 선불금을 주고 데려오기도 한다. 현재 1명의 선원은 선불금을 미리 받고도 오늘까지(2002년 8월 17일) 추자도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808 일〇호'에 고용된 11명의 선원들은 연령층이 23세~48세이다. 연령층이 다양해 야 배가 움직인다. 작업하는 사람, 교대로 잠자는 사람, 어구 손질하는 사람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 등 역할이 확실히 구분돼야 싸움도 없고 해상에서도 정상적으로 조업

할 수가 있다. 육지부 출신 7~8명의 선원들은 배가 귀향한 후에는 주로 선주의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 선원들이 직접 목욕하고 세탁할 수 있도록 선원들이 거주하는 동(棟)에 세탁기와 샤워실 등을 준비해 두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은 공동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선주) : 40(선장, 기관장, 선원)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40%의 금액에 대한 분배는 능력(역할, 경력)의 차이에 따라 차등분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장이 3,500만원을 받으면, 기관장은 2,500만원, 일반선원은 1,0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장기 근속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액수의 금액을 50%, 30%, 20%로 구분하여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선주는 선장의 소득보다 못할 때도 많다.

선원 1명에게는 최소한도 1년에 600만원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유자망 어업의 실질적 작업기간인 10개월에다가 월 법정 최저임금인 6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년에 1,000만원을 보장해 주어야만 계속해서 선원으로 남는다. 보수가 생각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른 배의 일손으로 가 버리거나 아예 추자도를 떠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휴어기이다. 이 때에는 공식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선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휴가비를 조금씩 주고 있다. 선원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가 버릴 경우, 자기 몫의 70~80%만 중간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6) 애로사항 및 행정당국에의 건의사항

어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나 행정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상당히 많으며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해결될 지가 의문이라며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원들이 거주할 방을 증축하려 해도 건축규제가 너무 심하다. 선원들의 거주하는 공간은 가능한 한 선주집 내에 또는 가까운 거리 내에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보통 선주의 집을 개조하여 선원들의 방을 꾸미려고 할 경우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주들은 인근의 여관이나 민박집을 선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

둘째, 어류의 지나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획량에 대해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어류의 남획은 어류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점은 특히 걱정된다.

셋째, 망목(網目) 제한이 필요하다. 즉 그물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것은 치어(稚魚)까지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추자도 연·근해에서 작업하는 어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의 운영자금으로 고율(高率)의 이자가 발생하는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낮은 수협자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출자격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저율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섯째, 유자망 어선들 사이의 지나친 어획 경쟁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20여년 전 추자도에는 모두 합해 37척의 배가 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 화합이 잘돼서, 사고발생 때나 경·조사시에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척수가 2배로 증가하여 무한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남의 배야 어떻든 내 배만 먼저 돈벌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심지어는 이웃이나 사촌간에도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이 70%가 넘는다. 경쟁원리가 추자도 사회에 보편화되면서, 주민들 사이는 상부상조하는 마음이나 공동체 의식이 점차 소멸돼 가고 있다.

여섯째, 정부의 감척사업(減隻事業)에도 문제가 있다. 즉, 일부 선주들의 경우는 감척 보상금으로 새 배를 구입하여 다시 어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척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서류 상으로만 감척된 어선도 존재하고 있다.

IV. 어선어업의 특성

지금까지 추자도의 어업환경과 어선어업의 실태 등을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추자도 어선어업의 특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추자도 어선어업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현시점에서 추자도 어업이 당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추자도 어선어업의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업형태로 볼 때 많은 어선들이 연안해역에서의 연승(주낙), 자망, 들망 및 외줄낚시 어업에 한정·특화(特化)되고 있다는 점이다(〈표 10〉참조). 이러한 배경은 전체적으로 어선세력이 약하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표 9〉참조). 그러므로 어업일수로 보면, 항상 당일치기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이 많으며 동시에 풍량이 다소 높게 일게 되면 대부분 출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추자도 어선어업의 두 번째 특성은 어업노동력 측면에서 볼 때 부부중심 혹은 3~4명 이하의 적은 노동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점은 어선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배경과 결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선 1척 당 어획량의 증대를 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계수입도 일정한 한도를 넘길 수 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의 특성은 현재 추자도의 어업은 대부분 50대 중반 이후의 장·노년층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이점은 현행 어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노년층을 이어갈 청년층의 어업후계자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이 된다. 현시점에서 어업후계자의 확보문제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추자도 어업경기의 파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문제인 만큼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젊은 층 어업후계자의 확보문제가 추자도 어업의 존립 여부의 문제로 확대·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점은 청취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많은 장·노년층 어업종사자들은 향후 추자도의 어업 존속문제가 후계자의 부족문제로 크게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번째의 특성은 추자도 관내의 어장면적과 관련지어 볼 때 추자도 선적의 어선수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표 9〉참조). 이것은 앞서 논의한 어선세력과도 관련되며, 그 상황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어장의 범위, 즉 추자도 근해나 제주도 연·근해 해역을 주어장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이 많다는 배경에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어선규모와 조업어장, 노동력 비율이 구조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추자도 어선어업의 특성을 검토해 볼 때,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산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추자도의 어선어업도 어업규모가 작고 적은 어업노동력에 의해 주도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망어업을 제외한 연승어업이나 들망, 외줄낚시 어업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부가 중심이 되거나 선장 혹은 선주 외에 3~4인 정도의 선원에 의해 어로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유자망어업에서는 어선들이 대부분 30톤급 이상을 보이는 관계로 인해, 그에 따른 어업노동력도 10여명을 넘고 있어 추자도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어업형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자도의 어업특성이 어선세력이 약하고 소수의 어업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상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망할 때, 앞으로의 어업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업의 영세성에서 초래되는 어업수입의 감소나 전체적인 어업경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계의 대부분을 어업부문에서 담당하는 겸업어거나 전업어가의 탈퇴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가의 탈퇴현상은 결국 어업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추자도 내의 경제기반도 한층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새삼 강조하자면, 어업의 영세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어업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추자도 내의 경제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배경을 미리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V. 맺음말 : 추자도 어선어업의 현안과제

지금까지 추자도의 어업형태와 어선어업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자도 어민들 사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동시에 보다 바람직한 어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결론 삼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가지 분명히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필자들의 조사활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제만이 현재 추자도 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는 하나, 최근 추자도 어선어업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현실적인 몇 가지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추자도 어선어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어업 노동력(선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어업 노동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배의 규모인 톤수의 고저(高低)에 따라 배를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배의 톤수와는 관계없이 어선어업에서 조업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측면이다. 물론 전자(前者)의 경우는 특별한 허가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톤수가 큰 어선의 경우에는 선장, 기관장, 갑판장 등 어선내의 지위나 위치별로 필요하지만,

톤수가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장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어업 노동력이라 할 때는 주로 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말하며, 추자도의 어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현상은 후자와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어선어업에서도 선장이나 기관장 등 전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조업에 필요한 일반 노동력 즉 선원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어업 노동력과도 관련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추자도의 어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층 어업인 즉 어업 후계자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이 소유하는 어선을 가지고 조업활동에 임하는 젊은 층 어업인은 만나 보기 힘들 정도였다. 고기잡이 자체가 상당히 힘든 직업 중의 하나라는 전통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지역사회에 고착돼 있는 배경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현시점부터라도 젊은 층 어업인을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추자도의 어업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행정당국인 북제주군이나 해당지역의 어업 종사자들 중 기성세대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일부 어종(문어)과 자망어업에 의해 포획된 어류 등이 추자수협에서 수매하지 않아 일부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는 필수적으로 추자수협의 수매 구조체제가 어떤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영흥리나 예초리의 사례와 같이, 문어잡이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완도의 중간상인과 직접 판매하는 과정을 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러한 판매형태가 전업어가의 입장에서 볼 때 운송비의 절감이나 조업시간의 조절 혹은 판매 전까지의 일시적 보관 등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인 일부 어종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합리적인 판매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부 어민들의 안고 있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행정당국과 관련기관(추자수협)이 지혜를 모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로, 제주도 및 추자도 연·근해에서 행할 수 있는 어구의 사용, 어업 허가권 또는 조업수역 등과 관련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같은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다른 지역 어선들과의 차이에서 초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자도 어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비애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가령, 예초리의 문어단지 어업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배의 톤수에 따른 연해 및 근해에서의 조업허가는 관련

되는 수산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 생각되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전라도권 어선들이 제주도의 조업수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크게 부상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어구문제도 어업 허가권과 관련하여 어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송어잡이에 삼중망(三重網)의 허가문제와 꽃게 통발어업의 허가문제 등이다. 어업허가나 사용하는 어구(그물)의 제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식의 토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어선들은 동일한 환경의 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데 반하여, 추자도 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는 배경이 된다면 어민들의 의욕과 사기저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추자도의 어업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은 정확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로, 어장관리 및 보존과 관련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추자도의 주민(어민)과 행정당국(북제주군, 해경)이 동시에 역할분담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추자도가 낚시의 천국으로 지명도가 높아진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추자도 주변 해역에는 낚시꾼들이 사시사철 끊기지 않고 줄을 잇고 있다.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추자도 주변의 작은 섬을 포함한 연안해역은 추자도 내 5개 마을의 마을어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항상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낚시꾼이 사용하는 고기 밑밥이 마을어장 내의 해수면 밑바닥에 침전·퇴적되는 데서 나타나는 후유증이다. 결과적으로, 마을어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라, 전복 등의 패류나 톳, 미역 등의 해초류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어장의 황폐화는 곧 마을어장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리는 노년층 어가나 해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마을어장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화가 진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낚시꾼들에게도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자도 어민들의 주로 활동하는 어장의 보전문제는 다른 차원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어민들의 어로수역(漁撈水域)에 다른 지역의 어선들이 대거 출어하여 싸쓸이 조업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이 다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절차에 따른 강력한 제어·통제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그 이전 단계에서는 관할 어로수역에 대한 행정당국과 어민들의 철저한 관리와 감시활동만이 자유로

운 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어로활동에 있어 과잉적인 경쟁체제가 조장됨에 따라 점차 공동체 의식이 사라짐은 물론 지역사회 전통과 윤리적 규범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점은 전통적인 사회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일면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어로활동 그 자체도 개개인이 보나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나 규범적 틀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지역단위의 삶의 공간인 공동체의 울타리가 서서히 붕괴돼 가는 전조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추자도와 같은 작은 도서지역에서는 상품경제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초래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여러 도서지역에서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번 지역 공동체가 와해(瓦解)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추자도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도 서로 신뢰하며 상부상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상에서 지적한 과제 외에도 저리(低利)의 어업자금의 확보문제, 선원들을 위한 주거공간의 확보문제 혹은 감척사업의 후유증 등도 일부 어민들이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